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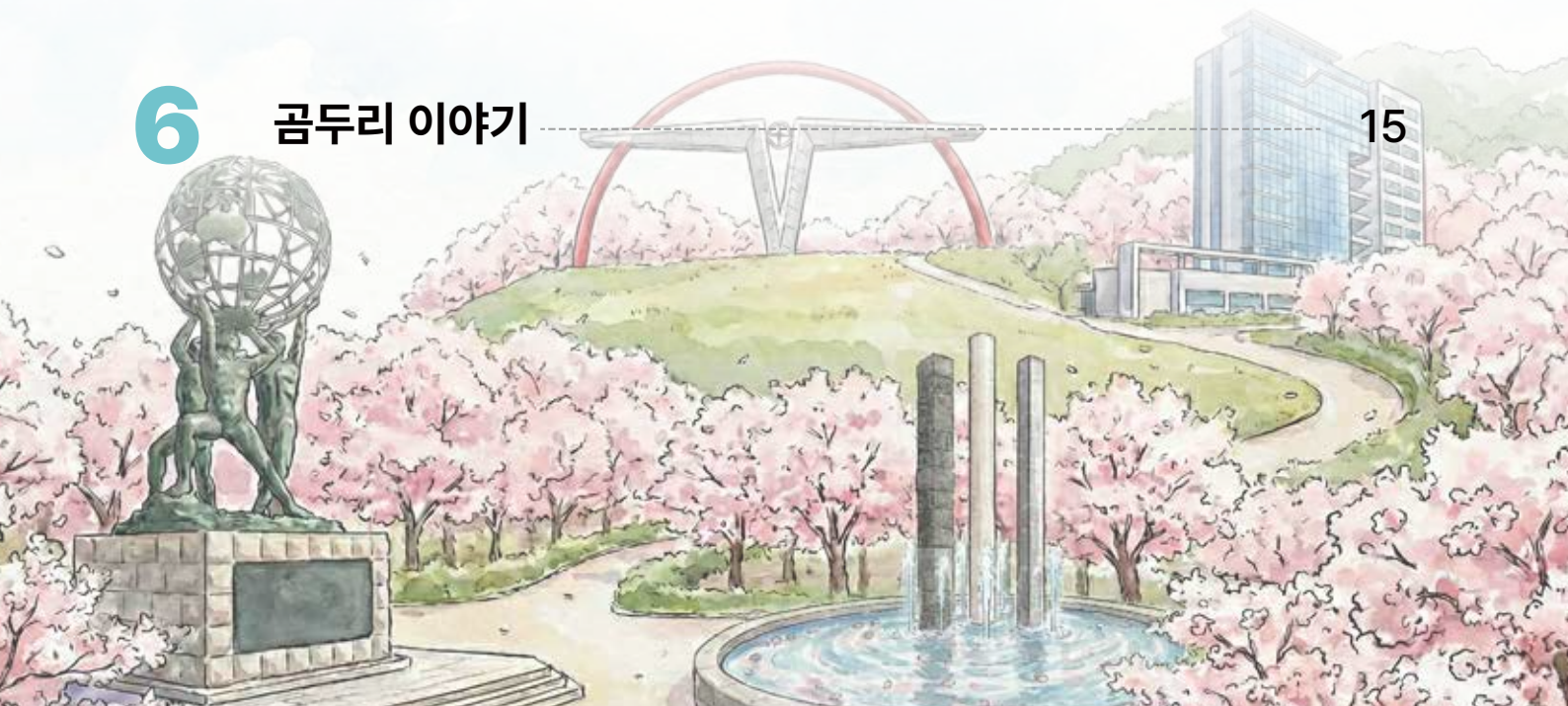
강원대학교 산학협력 정책 보고서

KROSS



CONTENTS

1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도약	1
2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5
3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 TF	10
4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	12
5	2025년 산학협력단 성과	14
6	곰두리 이야기	15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도약





1

2026. 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재도약

하나, 함께 꾸는 하나의 꿈, 강원 1도 1국립대학 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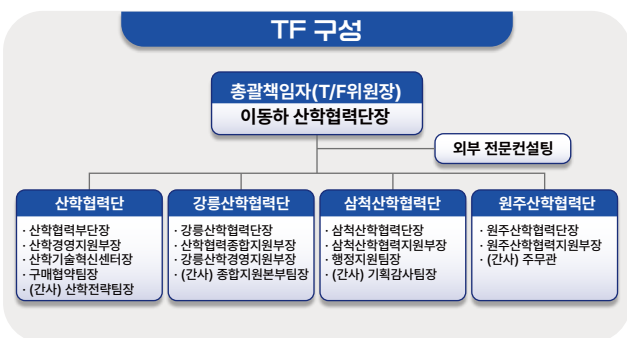
2026년 3월 1일,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는 새로운 통합 '강원대학교'로 공식 출범했다. 춘천·강릉·삼척·원주 총 4개의 멀티캠퍼스(Multi Campus) 체제를 갖춘 강원대학교는 학생 3만명, 교수 1,400명 규모로 전국 최대 국·공립대로 재탄생했다. 비로소 지역발전과 상생을 위한 강원대학교의 원대한 꿈을 함께 꿀 수 있게 되었다.

멀티캠퍼스(Multi Campus) 체제는 캠퍼스별 보유역량과 인프라를 중심으로 특성화를 모색했다. ㉠춘천캠퍼스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등을 중심으로 교육·연구 거점으로 구축하고, ㉡강릉캠퍼스는 신소재·해양/생명·천연물·관광 등 지·학·연 거점으로 육성한다. 또한 ㉢삼척캠퍼스는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분야에 주력하며 지역산업 거점으로서 성장시킬 예정이고, ㉣원주캠퍼스는 디지털헬스케어·E-모빌리티·반도체 산업 분야의 산학협력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강원대학교 멀티캠퍼스의 차별화된 역량과 인프라가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의 유기적인 시너지를 이끌 것을 기대한다.

둘, 둘이 하나로 변화하는 시간

강원대학교로 하나되기 위한 물리적·행정적 통합 논의가 장시간 이루어지고 있다. 두 대학의 체제가 새로운 하나로 설계·개편되는 중요한 시간이다. 이 둘은 캠퍼스 간 물리적 통합을 초월하여, 교육·연구·산학협력·지역발전 공헌에 종합적으로 기여·연결하는 하나의 대학 모델을 제시하고자 필연적인 진통을 겪고 있다.

산학협력단은 물리적 통합과 함께 화학적 결합까지 효율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전계획 TF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동하 산학협력단장(위원장)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산학협력단 주요 보직자가 위원으로 참여해 조직·운영전략·시스템 인프라·재무 분야의 통합을 위한 선제적(신속한) 의사결정을 모색한다. 또한 중장기 비전 도출과 공동 KPI 구성으로 통합에 따른 성과창출·확대·관리 방안도 체계적으로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물리적 통합과 함께 산학협력단 비전 공유·공감에 기반한 조직 문화 융합과 구성원 간의 자연스러운 화학적 결합도 TF 운영을 통해 다양한 접점을 찾아갈 계획이다.



주요 논의사항

단기 과도기 정비	조직 구성, 권한, 인사·재무·연구 관리, 시스템 인프라
단기 현안해결	현안문제 해결 (연구자 지원사업, 국제사업 제한 등)
중장기 미래전망	비전 및 목표, 성장 전략, 단계별 로드맵 등

셋, 세 가지, 커다란 기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단순한 조직의 결합을 넘어,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큰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

1 캠퍼스별 특성화 역량을 바탕으로 산학협력 전문성 확대

춘천·강릉·삼척·원주 캠퍼스가 보유한 서로 다른 연구·산학협력 역량과 산업인프라를 바탕으로 통합 후 각각의 강점을 더욱 큰 전문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외부 기대 요구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캠퍼스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과 인력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업무 중복을 개선하고 효율화를 추구해야 하며, 강점을 더욱 예리하게 다듬는 노력으로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대형 국책사업 기획·공동 연구·기술사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 '강원1도1국립대학'의 명성에 걸맞은 전문 산학협력 플랫폼으로 재편해 나가야 한다.

2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통합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정비·개선을 추진되어야 하는 영역은 의사결정 구조 정리와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다. 산학협력단은 조직·시스템·재무를 아우르는 일원화된 운영 체계를 구축해 행정 소요를 절감하고,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와 기업이 느끼는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발굴부터 계약, 집행, 사업화, 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주기를 하나의 흐름(Flow)으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산학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3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동반성장 기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캠퍼스 간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과 연대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캠퍼스 간 공동 KPI를 설정하고, 성과를 공유·확산하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캠퍼스의 성과가 아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우수 협력모델이 강원특별자치도 전역의 혁신 역량 강화로 확산되도록 성장모델을 설계해야 한다. 나아가 대학-지역-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속에서 강원대학교 주도의 지역,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과의 파트너십도 촘촘하게 이어나가야 한다.





넷, 네 개의 캠퍼스 그리고 산학협력



◎ 춘천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분	현황
재학생 수(명)	12,426
전임교원 수(명)	837
총연구비(억원)	1,023
기술료수입(억원)	16
특허출원(건)	341
교원창업(개사)	13
자회사(개사)	38
산단 운영수입(억원)	1,514

춘천캠퍼스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바이오·데이터 산업이 밀집한 도시의 이점을 바탕으로, 가장 큰 규모의 학생과 교원을 토대로 안정적인 연구 생태계를 구축해 왔다. 특허출원, 기술사업화에 따른 수입, 교원창업, 자회사 수 등 산학협력과 관련된 주요 지표는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된 산학협력 기반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반증한다. 오랜기간 쌓아온 산학협력 경험과 노하우의 확산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강원형 산학협력 모델을 새롭게 구축해 나가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



◎ 강릉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분	현황
재학생 수(명)	4,369
전임교원 수(명)	277
총연구비(억원)	143
기술료수입(억원)	3
특허출원(건)	105
교원창업(개사)	4
자회사(개사)	-
산단 운영수입(억원)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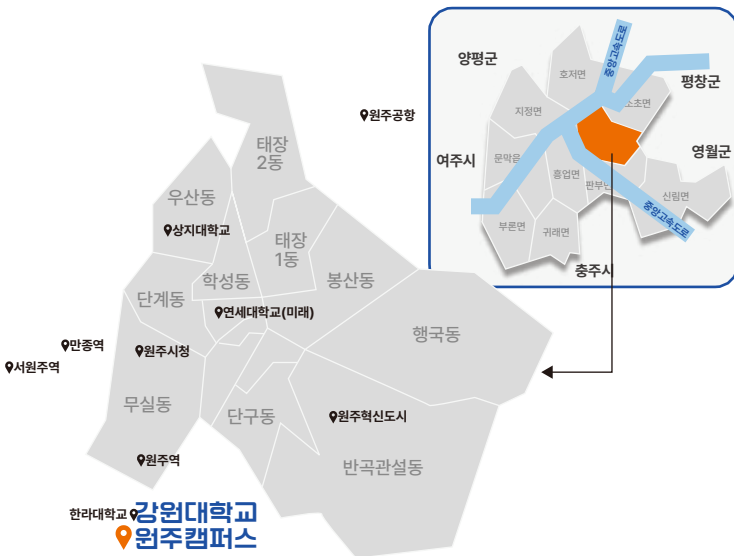
강릉캠퍼스는 해양·생명·천연물·관광·스포츠 산업이 공존하는 동해안 거점도시 강릉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신소재·천연물을 중점적으로 활용한 산학협력은 규모 면에서는 춘천보다 작더라도, 지역 특화 산업과 긴밀히 맞물린 연구과제·기술사업화에서 내실있는 강점을 발휘하고 있으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통합 체제에서는 동해안 벨트(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전체를 포괄하는 동해안 산학협력 허브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



⑤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분	현황
재학생 수(명)	4,499
전임교원 수(명)	198
총연구비(억원)	132
기술료수입(억원)	-
특허출원(건)	-
교원창업(개사)	3
자회사(개사)	-
산단 운영수입(억원)	123

삼척캠퍼스는 에너지·재난안전 산업의 현장이자 액화수소·에이징테크·재난방재 분야를 특화해 온 삼척에 위치한다. 총연구비와 특허, 기술료 등 개별 지표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탄소중립과 안전사회 구축이라는 국가 아젠다와 직결된 연구환경 및 실무중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크지 않지만 전략적인 산학협력 거점으로서 의미가 상당하다. 또한 강릉캠퍼스 산학협력단과 동해안 벨트 발전을 위해 협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며, 폐광 지역 대체산업 발굴·집중 육성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기에 최적지임이 분명하다.



⑥ 원주캠퍼스 산학협력단

구분	현황
재학생 수(명)	1,831
전임교원 수(명)	94
총연구비(억원)	27
기술료수입(억원)	-
특허출원(건)	-
교원창업(개사)	1
자회사(개사)	-
산단 운영수입(억원)	-

* 운영수입은 강릉캠퍼스에 포함되어 결산

원주캠퍼스는 의료기기·디지털헬스케어, E-모빌리티·반도체 산업 클러스터 등 타 지역 대비 산업인프라가 집적되어 혁신도시의 발전을 가속화하며 성장을 지속해 왔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의료·바이오 기업 집적지라는 도시의 성격은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기업과의 공동연구·실증·임상·제품화로 이어지는 빠른 사업화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시 교통의 이점으로 수도권·충북권으로 산학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2 산학협력단장 인사말

“

하나 된 혁신 역량으로,
지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겠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이동하입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금,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춘천, 강릉, 삼척, 원주로 이어지는 통합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조직의 결합을 넘어, **산학협력 가치사슬을 확장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각 캠퍼스는 지역과 산업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산학협력 성과를 축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강점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보다 큰 시너지를 창출할 시점입니다.

통합 산학협력단은 연구, 기술사업화, 창업, 기업지원, 투자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수익모델과 지역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실사구시형 산학협력'**을 통해, **기업에는 실질적인 성장의 기회를, 학생에게는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캠퍼스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실행 방향을 함께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산학협력단장 인터뷰

Q1 산학협력단 통합 추진의 핵심 배경과 필요성을 무엇입니까?

강원대학교는 각 캠퍼스별로 특화된 역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연결하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경우 훨씬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통합은 분산된 역량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2 통합된 산학협력단의 중장기 방향은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산학협력 가치사슬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가 기술사업화로 이어지고, 다시 창업과 기업 성장, 투자로 연결되는 구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지원 조직을 넘어, 수익과 성과를 창출하는 선도형 조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 **현재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각 캠퍼스의 역량과 사업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합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강원대학교 산학협력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설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Q3 통합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운영 전략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은 **'표준화와 자율성의 균형'**입니다. 통합 조직으로서 기본적인 제도와 운영 체계는 일원화해야 하지만, 각 캠퍼스가 가진 특성과 강점은 그대로 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공통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캠퍼스별 특화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중 구조 운영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이 통합의 효율성과 현장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4 산학협력단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기존에는 개별 사업이나 단위 과제 중심으로 성과가 창출되었다면, 통합 이후에는 연계형 성과 창출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 성과가 기술이전으로 이어지고, 다시 창업이나 기업 성장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성과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Q5 통합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학협력단은 지역과 대학, 기업을 연결하는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지역 산업과 밀접하게 연계된 연구와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학생들에게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 경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2 원주산학협력단장 인사말

“

원주는 통합 강원대학교에서
산학협력을 책임지는 캠퍼스입니다.

지역 산업 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



반갑습니다. 원주산학협력단장 김대식입니다.

통합 강원대학교는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해 4개 캠퍼스 각각에 고유한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그중 원주캠퍼스는 **'산학협력 거점'으로 특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원주가 가진 환경 때문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최대 경제도시이자,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직접지가 자리한 곳입니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보건의료 공공기관이 모여 있는 이 도시에서, **대학의 연구 역량과 산업 현장이 만나는 접점을 넓히는 것이 원주산학협력단의 핵심 역할**입니다.

아직 출범 초기인 만큼 체계를 갖춰 나가는 과정에 있지만, 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미래모빌리티 등 원주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을 잇는 실질적 산학협력의 성과를 하나씩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산학협력단은 강원대학교의 일원으로서,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실천 중심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 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출발에 힘을 보태주시시오.

감사합니다.

2 원주산학협력단장 인터뷰

Q1 산학협력단 통합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먼저 **강원 1도 1국립대학이라는 대학 통합 자체의 의미**가 큼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립대학 역량이 하나로 모여, 재학생 3만 명, 교수진 1,400명 규모의 국가거점국립대학이 탄생했습니다. 산학협력단 통합은 이 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단순히 조직을 합친 것이 아니라 캠퍼스별로 산학협력의 역할과 특화 분야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춘천은 정밀의료·바이오헬스·데이터산업 중심의 교육·연구 거점, 삼척은 액화수소·방재·에너지 분야의 지·산·학 협력 거점, 강릉은 신소재·해양바이오·천연물 분야의 지·학·연 협력 거점, 그리고 원주는 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이모빌리티·스마트제조 중심의 산학협력 거점으로 특성화되었습니다. 각 캠퍼스가 지역 산업에 맞는 강점에 집중하면서도 하나의 산학협력단으로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통합의 실질적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Q2 통합 이후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4개 캠퍼스의 특화 분야가 하나의 사업 안에서 결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RISE 사업이나 대형 국책과제를 추진할 때, 각 캠퍼스 소재 지역의 산업 네트워크가 연계된다면, 어느 한 캠퍼스 단독으로는 만들 수 없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전체를 아우르는 산학협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주 입장에서도, 그동안 단독으로 참여하기 어려웠던 대형 사업에 지역 산업 네트워크와 사업화 경험을 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Q3 통합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 체계의 조기 안정화**입니다. 통합 이후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은 독립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했는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나 제도 정비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4개 캠퍼스가 동일한 기준과 프로세스로 연구 행정을 운영할 수 있어야 캠퍼스 간 공동연구나 장비 공유 같은 시너지도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통합의 비전을 말하기 전에, 교수님들의 일상적인 연구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지금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초가 갖춰져야 캠퍼스 간 협력의 문턱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입니다.



Q4 원주캠퍼스의 강점을 산학협력단 통합에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원주의 가장 큰 강점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산학협력의 토양이 가장 두터운 도시**라는 점입니다. 원주는 도내 최대 인구도시이자 최대 경제도시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동시에 보유한 전국에서도 드문 사례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고, 의료기기·반도체·제조업 등 업종도 다양해서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산업 파트너의 폭이 넓습니다. 혁신도시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3개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어, 연구-데이터-인허가-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한 지역 안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원주산학협력단은 이러한 지역 인프라와 대학의 연구 역량을 잇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려 합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대학에서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가 기업을 통해 사업화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Q5 통합 이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은 **변화보다 안정이 먼저 체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주산학협력단은 작은 조직이 큰 변화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캠퍼스에 관계없이 동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강원대학교라는 하나의 창구를 통해 4개 캠퍼스의 연구 인력과 장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원주에서는 지역 기업과의 공동연구나 기술이전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출발은 조용하지만, 현장에서 차이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나씩 성과를 쌓아 가겠습니다.

Q6 임기 마지막에 그리고 계신 원주 산학협력단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임기 말에는 원주산학협력단의 독립적인 기능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대학 내외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조직'으로 인정받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년 임기 동안 지속적인 개선과 피드백을 반복하며 조직의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원주산학협력단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과 협력이 필요한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타 캠퍼스와의 협업도 보다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각 캠퍼스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산학협력단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 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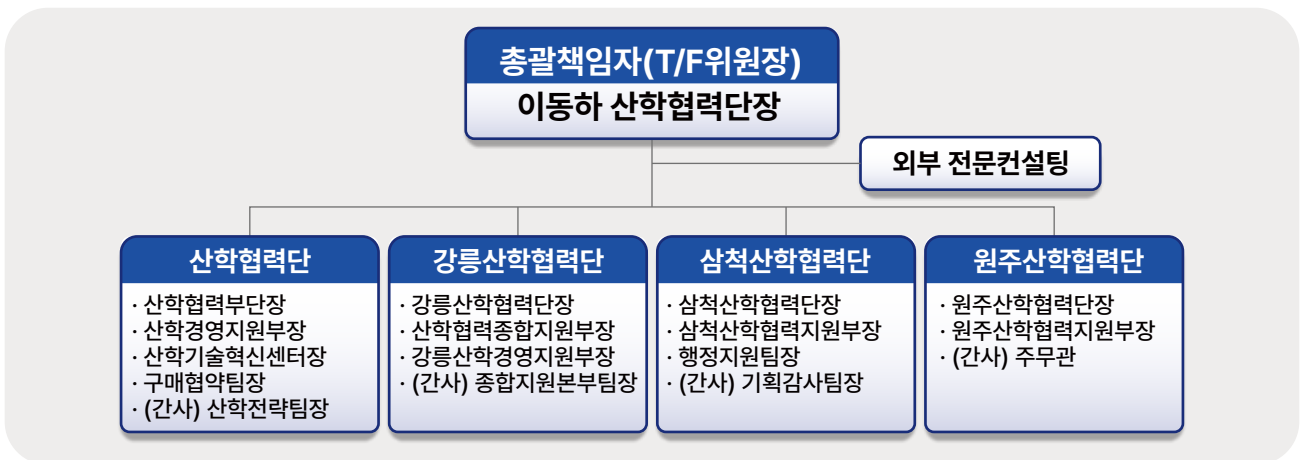
3 산학협력단 중장기 발전계획 T/F



☑ 춘천 · 강릉 · 삼척 · 원주 4개 캠퍼스 역량 결집... 중장기 비전 및 로드맵 도출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통합 강원대학교' 출범에 따른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방위적인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 산학협력단 발전계획 수립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다. 이번 T/F는 캠퍼스별 현황과 역량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유기적인 통합 의사결정과 중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조직과 시스템의 유기적 통합... 16인의 위원회 구성



이번 T/F는 이동하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각 캠퍼스 산학협력단장과 주요 부서장 등 총 16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춘천, 강릉, 삼척, 원주 각 캠퍼스의 실질적인 협력과 전문성 공유를 위해 복수 간사 체제로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전문 컨설팅도 병행할 예정이다.

☑ 단기 현안 해결부터 중장기 비전 수립까지

T/F의 주요 논의 사항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뉜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합병계약서에 따른 과도기적 정비 사항인 조직 구성, 인사 및 재무 관리, 시스템 인프라 통합 등을 다룬다. 특히 캠퍼스별로 독립적인 재산제와 인사 관리를 유지하면서도 복무나 복리후생 등 조정 가능한 부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캠퍼스 간 상이한 연구자 지원사업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책사업의 '1대학 1과제' 지원 제한에 따른 경합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현장 연구자들이 겪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편함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통합 산학협력단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캠퍼스별 특화 산학협력 모델을 재편하는 성장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 4단계 로드맵 통한 '화학적 결합'을 꿈꾸다

T/F는 안정기(거버넌스 구축), 성장기(협업 체계 강화), 성숙기(시스템 완전 통합), 재도약기(조직 문화 융합)로 이어지는 4단계 로드맵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구성원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화학적 결합'을 이끌어내고, 대내외적으로 선도적인 산학협력 위상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 통합을 넘어, 도약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

T/F는 지난 4월 초 춘천캠퍼스에서 열리는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각 캠퍼스를 순회하며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10월까지 발전계획 보고서 초안을 도출한 뒤, 올해 12월 최종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통합 산학협력단 캠퍼스 간 최초의 협업 사례로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전략적 시너지 창출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





4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

☑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식' 성황리 개최



지난 3월 30일(월), 춘천캠퍼스 백령아트센터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1도 1국립대학' 출범을 기념하는 '강원대학교 통합 비전 선포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춘천, 원주, 강릉, 삼척 4개 캠퍼스를 하나의 통합 대학 체계로 묶어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언하는 자리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 주요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통합의 의미와 방향성을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강원대학교가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중심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함께 이루어 갈 다섯 가지의 약속



- 첫째, “강원 1도 1국립대학” 통합 모델의 성공적 구축
- 둘째, AI 전환 시대에 맞춘 학생 중심 미래 교육 실현 및 AX 인재 양성
-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성과를 내는 연구 중심 대학 도약
- 넷째, 1도1국립대학으로서 지·산·학 동반성장 견인
- 다섯째, 세계와 더 넓게 연결되는 100위권 글로벌 대학 도약

정재연 강원대학교 총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향후 강원대학교가 나아갈 다섯 가지 핵심 약속을 제시하며, 국가거점국립대학 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 실행을 뒷받침하는 산학협력 기반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제시된 다섯 가지 약속을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실행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여 비전 실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합 모델 구축과 관련하여 캠퍼스 간 산학협력 자원의 공유와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각 캠퍼스의 특성화 분야를 연결한 공동 연구 및 기업지원 활동을 통해 분산된 역량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산학협력

지·산·학 동반성장 측면에서 산학협력단은 지역 전략산업과 대학의 연구역량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 구조와 연계한 맞춤형 기업지원, 기술이전, 창업지원 등을 통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 글로벌로 확장되는 산학협력

글로벌 대학으로의 도약을 위해 산학협력단은 해외 대학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 기술협력, 글로벌 창업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출발한 연구와 기술이 세계 시장으로 확장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대학교의 국제적 위상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산학협력 성과의 축적과 확산

산학협력단은 개별 사업과 성과를 단편적으로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성과와 기술사업화, 기업지원 등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다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는 환류 체계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축적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확산되며, 대학의 산학협력 경쟁력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산학협력단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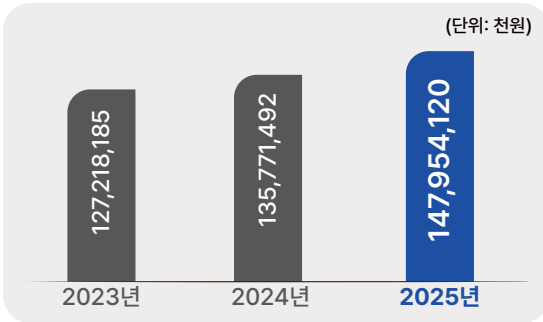




5 2025년 산학협력단 성과

2025년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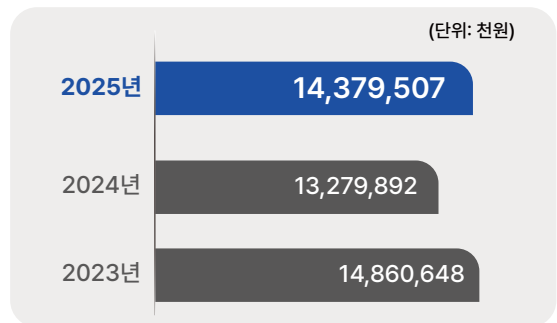
과제 협약금액('25. 3. ~ '26.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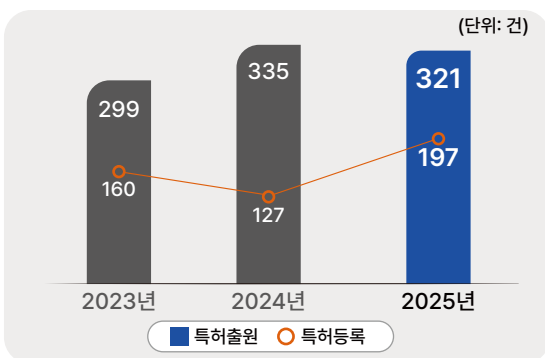
- '25년 강원대학교 연구비 협약 금액은 약 1,479억원으로 전년대비 8.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강원RISE사업(234억원), SW중심대학사업(30.5억원), 이공계연구생활장려금사업(23.7억원) 등 대형 사업이 실적을 견인하였다.

간접비 징수액('25. 3. ~ '26. 2.)

- '25년 간접비 징수액은 약 143억원으로 전년대비 8.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대형 사업들과 함께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 대부분에서 증가폭을 보이며 과제 협약금액과 비슷한 수준의 증가폭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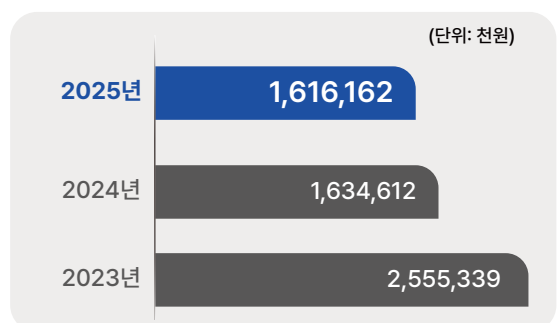
특허 출원 · 등록 현황('25. 1. ~ '25. 12.)



- '25년 특허출원은 총 321건으로 전년대비 4.1% 감소하였으나, 특허등록은 총 197건으로 전년대비 55.11% 증가하였다.
- 최근 연구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연구성과 창출 확대와 함께 특허 출원 규모의 증가도 기대된다.

기술이전 수입료('25. 1. ~ '25. 12.)

- '25년 기술이전 수입료는 약 16.1억원으로 전년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25년 특허 등록이 전년대비 크게 증가한 점과 향후 RISE 사업 체계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경우,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성과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곰두리 이야기





곰두리 이야기 #1

우리는 더 좋은 대학을 만들고 지역의 활기를 더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IDEA, 토론, 양보, 합의와 결정... 거듭된 회의 끝에 우리 다양한 이슈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춘천·강릉·삼척·원주로 활동영역을 광역화하고,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 기술 사업화를 통한 지역기업 기술력 강화와 대학 보유 기술의 가치실현을 위해 더욱 바빠질 예정입니다.



사계절이 모두 아름다운 강원대학교 캠퍼스는 지역과 소통하는 산학협력으로 새롭고 더 아름답게 변화 예정~!!



고민의 시간...
번뇌의 고통....
다음 곰두리 이야기는...



일단은 통합 성공!!



발행처 :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발행인 : 이동하(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장)

편집인 : 산학협력단 산학전략실

Tel 033.250.8283 **E-mail** kim0517@kangwon.ac.kr

24341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태백관 2~4층